

Humanity, Politics and Civilizations

제31회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인간, 정치, 문명

HUMANITY, POLITICS AND CIVILIZATIONS



2012년 9월 17일(월), 18일(화), 21일(금)

경희대학교



취지

‘근대의 위기.’ 오래된 이야기다. ‘긴 16세기(long sixteenth century),’ 인간이 인간을 재발견하고 문예부흥을 통해 생존과 번영의 질서를 모색한지 ‘반 천년,’ ‘근대’로 명명된 거대 문명이 큰 폭으로 흔들린다. 풍요로운 현대, 산업화의 ‘뒤 안길’로 인식되던 기아, 질병, 인권, 소외, 폭력, 생태 위기와 기후변화 같은 ‘지구 적 아포리아’(global aporia)가 기존 삶의 방식, 사유 방식에 일대 혁신을 요청한다. 현대의 담론은 여전히 차이와 구분, 경계와 배타에 길들여져 있다. 인간과 자연, 동양과 서양, 기독교와 이슬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우열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문제풀이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배타적 담론, 차이의 정치만으로 문제의 근간을 풀어낼 수 없다. 인류가 목도한 근대의 역사가 웅변으로 말해준다.

새 해법을 찾을 때다. 대립적 문명 이해와 맹신을 넘어 위기 탈출을 위한 새 길을 찾아 나설 때다. 위기의 시절, 혹은 기회의 시절엔 항상 정치가 함께했다. 특히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던 시절엔 긍정의 힘이 작용했다. 긍정의 정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립과 배제를 넘어 공감과 합의의 새 희망이 움텄다. 지금 지구촌 곳곳엔 정치의 변화가 일고 있다. 리더십 변화가 속속 등장한다. 그러나 리더십 변화가 기존 질서에 ‘창조적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 없이 더 나은 개인,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정치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급격한 인식 전환과 집단적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인간, 사회, 지구,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주체와 세계, 자아와 타자, 의식과 대상의 총체적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BEAUTIFUL

AFFLUENT

REWARDING



누가 할 것인가? 깨끗한 물 한 모금의 절규, 낫 놓은 아사와 질병의 통한, 거리로 내몰린 실직자의 위기, 지구마을을 뒤덮은 '점령하라' 시위, 폭정의 수난 속에 절규하는 '민주시민,' 머지않아 사라질 남극의 빙하... 산적한 지구적 아포리아를 풀어왔던 현대의 틀, 기성 정치의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새로운 주체, 새로운 활로를 논할 때다.

경희대학교는 제31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2를 개최해 인간, 정치, 문명의 미래를 조망한다. 인간과 정치에 대한 총체적 성찰을 통해 미래 문명을 향한 실천적 담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Peace BAR Festival 2012는 "정신적으로 아름답고(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materially Affluent),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humanly Rewarding)" 지구촌 인류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과 사회, 시민과 대학, 국제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담론과 가능성의 축제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

세계평화의 날/해는 1981년 경희대가 제안하고 유엔이 제정하면서 정례화되었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U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제6차 총회에서 조영식 경희대 총장은 유엔이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IUP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해 유엔에 전달했고, 유엔은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했다.

당시 유엔 총회 결의문(Resolution 36/37)에는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시키고자” 제정되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 산하 기관과 기구, 지역기구, NGO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엔과의 협력 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고 쓰여있다.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냉전체제의 완화가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IUP의 생각은 시의적절했다. 세계평화의 날/해가 제안되던 무렵,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던 동서 양 진영은 세계평화의 해가 공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1986년 1월 1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상대 국민을 향해 신년 평화의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전달하면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양국이 추진해오던 군축회담도 진행되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핵무기 감축안이 마련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되었다.



개관

개회식

인간, 정치, 문명
Humanity, Politics and Civilizations

무용제

물의 정거장
The Station of Water

음악회

UN 세계평화의날 기념 헌정음악회
Concert dedicated to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국제회의

초청강연
문명적 전환의 정치
The Politics of a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

라운드테이블
지식의 구조들 : 과학과 인문학의
인식론적 재융합?
Structures of Knowledge :
Epistemological Reconvergence
of Science and the Humanities?

지구사회봉사 한마당

연민과 울림 :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여정
Compassion and Resonance :
A Journey into a "Beautiful, Affluent,
and Rewarding" Planet

UNAI ASPIRE Kyung Hee Forum

동북아 지역의 갈등 예방을 위한
유엔과 청년의 역할
Conflict Prevention in Northeast Asia:
The Rol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Youth



PEACE BAR FESTIVAL 2012
Humanity, Politics and Civilizations

프로그램

일시 2012년 9월 17일(월)
장소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

18:30~18:50	개회식	<p>인간, 정치, 문명 Humanity, Politics and Civilizations</p> <p>환영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개관 김여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사회 신은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p>
18:50~19:20	무용제	<p>물의 정거장 The Station of Water</p> <p>경희대학교 무용학부</p>
19:30~21:10	초청강연	<p>문명적 전환의 정치 The Politics of a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p> <p>강연 이매뉴얼 윌러스틴 예일대학교 종신교수</p>

일 시 2012년 9월 18일(화)
 장 소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 평화의전당

<p>14:00~16:30</p> <p>리운드테이블</p> <p>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p>		<p>지식의 구조들 : 과학과 인문학의 인식론적 재융합? Structures of Knowledge : Epistemological Reconvergence of Science and the Humanities?</p> <p>초청연사 이매뉴얼 윌러스틴 예일대학교 종신교수</p> <p>좌장 김여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p> <p>토론 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장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김민웅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김영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서지문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p>
<p>18:30~19:40</p> <p>지구사회봉사 한마당</p> <p>평화의전당</p>		<p>연민과 울림 :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여정 Compassion and Resonance : A Journey into a "Beautiful, Affluent, and Rewarding" Planet</p> <p>나눔과 소통의 경희 : 경희 실천의 어제와 오늘(영상 상영)</p> <p>축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p> <p>연민과 울림 : 경희의 지구적 실천</p> <p>발표 박한규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 사무총장</p> <p>특별강연 : 체계적 변화를 위한 초석</p> <p>강연 Ruchi Jain 청년환경운동가, 인도</p> <p>대담 박한규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GSC) 사무총장 장대환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서나현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재학</p> <p>(사회 윤주현 경희대학교 스페인학과 재학)</p>
<p>20:00~20:40</p> <p>음악회</p> <p>평화의전당</p>		<p>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헌정음악회</p> <p>솔로 KAI 팝페라가수 유미란 경희대학교 Post Modern 음악학과 강사</p> <p>중창 유단비, 정나윤, 박진경 경희대학교 Post Modern 음악학과 재학</p> <p>합창 경희대학교 Post Modern 음악학과 재학생</p> <p>연주 경희피스밴드</p> <p>감독 홍성규 경희대학교 Post Modern 음악학과 교수</p>

※ 행사 전 일정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웹캐스트됩니다.(www.khu.ac.kr/webcast)
 행사 홈페이지 http://pbf.khu.ac.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NIV, www.facebook.com/KHUPBF



프로그램

일시 2012년 9월 21일(금)
장소 국제캠퍼스 국제경영대학관

15:30 ~ 21:30	UNAI ASPIRE Kyung Hee Forum	<p>동북아 지역의 갈등 예방을 위한 유엔과 청년의 역할 Conflict Prevention in Northeast Asia: The Rol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Youth</p> <p>Session 1 정책담당자들과의 소통</p> <p>발표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 조정관 Chen Jian 중국유엔협회 이사 Tatsuro Kunugi 일본유엔협회 이사</p> <p>Session 2 청년들의 상상력</p> <p>토론패널 한국, 중국, 일본 및 UNAI ASPIRE 소속학생 (사회 홍두리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재학)</p>
---------------	--------------------------------	---

※ 행사 전 일정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웹캐스트됩니다.(www.khu.ac.kr/webcast)

행사 홈페이지 <http://pbf.khu.ac.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NIV, www.facebook.com/KHUPBF



개회식

경희대학교는 제31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2를 개최해 인간, 정치, 문명의 미래를 조망한다. 인간과 정치에 대한 총체적 성찰을 통해 미래 문명을 향한 실천적 담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Peace BAR Festival 2012는 “정신적으로 아름답고(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materially Affluent),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humanly Rewarding)” 지구촌 인류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과 사회, 시민과 대학, 국제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담론과 기능성의 축제다.

일 시 2012년 9월 17일(월) 18:30~18:50
장 소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

환영사	“인간, 정치, 문명”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개관	“Peace BAR Festival”	김여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무용제

The Station of Water

물의 정거장

‘근대라는 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프로메테우스적 문명과 이성을 맹신하는 폭주기관차다.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불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라 믿으며 자연마저 우리가 관리해 온 정원쯤으로 여기고 있다. 현대무용 “물의 정거장”은 이러한 지구촌 삶의 한 단면을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이상세계에 대한 염원을 물과 불의 이미지로 그려 낸 강은교의 詩 ‘우리가 물이 되어’ 를 모티브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작품이다.

#1 교차로에서 From Crossroads ‘물과 불’의 원형적 상징을 바탕으로 나와 남, 인종과 국가, 자연과 문명 등의 서로 다른 것들이 혼재한 지구촌

#2 불의 전차 The Chariots of Fire ‘근대라는 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프로메테우스적 문명과 이성을 맹신하는 폭주기관차이며, 자신만의 성을 쌓고 지키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뜬 채 네미의 숲을 돌고 도는 정원사이다

#3 물의 정거장 The Station of Water

#4 동트는 새벽 The Break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 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일시 2012년 9월 17일(월) 18:50~19:20

장소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

총괄연출 및 안무	박명숙 경희대학교 무용학부장
대본연출, 무대디자인, 의상디자인	주용철
무대감독	김득문
지도	정유라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강사 백주미 경북예술고등학교 강사
음악	김희중
기획	황보주성, 정은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
출연	백주미 경북예술고등학교 강사 신아람, 황보주성, 정은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 이하나, 전윤정, 임정하, 김미연, 김태은, 안현민, 조인정, 한경아, 김나연, 김혜선, 박유진, 박영대, 백지연, 신성은, 이다겸, 정승호, 정지수, 최영준, 황찬용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재학



국제회의 초청강연/라운드테이블

근대 문명의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기아와 질병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생태계가 위협받고, 지구공동체의 번영이 총체적으로 의문시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지구적 난제를 풀기에는 기존 사유의 방식과 삶의 틀로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근대성이 자기 역할을 소진한 이때, 더 나은 지구 공동체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상상해야 할 새로운 지적 담론은 무엇인가? 근본적 인식 전환을 통해 차이와 경계의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서사(narrative)는 누가 만들어 가는가?

Peace BAR Festival 2012 국제회의는 세계체제론과 새로운 미래를 주창해온 석학 Immanuel Wallerstein 교수의 특별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지구적 정치 리더십의 교체기를 맞아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가능성과 함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명사적 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국제회의 초청강연

The Politics of a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

문명적 전환의 정치

“우리는 500년마다 찾아오는 역사적 체제의 구조적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 현재의 경제, 사회, 정치적 난관은 단순히 주기적 하향세의 결과로 분석될 수 없으며, 정책의 수정으로 교정될 수 없다. 500년 가까이 지속된 근대세계체제는 끝없는 자본축적의 원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계속 이 원리로 작동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자본주의는 더 이상 형식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

- Immanuel Wallerstein

일시 2012년 9월 17일(월) 19:30~21:10

장소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

오프닝 대담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강연	문명적 전환의 정치 The Politics of a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학교 종신교수
토론	청중과의 토론

이매뉴얼 월러스틴 Immanuel Wallerstein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0년대 이후 맥길대학교 사회학 교수로 재직했고, 1973년 African Studies Association의 대표가 되었다. 1976년부터 빙엄튼대학교로 옮겨 1999년 은퇴 전까지 사회학을 강의했다. 이후 페르낭 브로델 센터의 운영을 책임지는 한편 2005년까지 빙엄튼대학교에서 경제학, 역사적 체계와 문명에 대해 강의했다. 월러스틴 교수는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방문교수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다수의 명예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Directeur d'études associé 로 재직했고,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국제사회학협회 대표를 맡기도 했다. 현재 예일대학교 종신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회의 라운드테이블

Structures of Knowledge : Epistemological Reconvergence of Science and the Humanities?

지식의 구조들 : 과학과 인문학의 인식론적 재융합?

서구가 이끌어온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유럽적 보편주의에 기반한 근대 지식세계는 효과적인 진단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한 세계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세계패권의 변동 속에서 동아시아와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재성찰하고, 문명을 재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패러다임을 창조해야 한다. 21세기 지식인의 역할과 고등교육의 나아갈 바를 재설정해야 한다.

일 시 2012년 9월 18일(화) 14:00~16:30

장 소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

기조발표	이매뉴얼 윌러스틴	에일대학교 종신교수
지정토론	이매뉴얼 윌러스틴	에일대학교 종신교수
	김여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장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김민웅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교수
	김영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서지문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청중과의 대화		



지구사회봉사 한마당

Compassion and Resonance : A Journey into a “Beautiful, Affluent, and Rewarding” Planet

연민과 울림 :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여정

경희대학교가 대학 사회공헌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나가고 있다. 지난 해 경희지구사회봉사단 (GSC)을 창립해, 창학이래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학술과 실천의 창의적 결합을 지역과 국가, 지구사회로 확대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아름답고(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materially Affluent),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humanly Rewarding) 지구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Peace BAR Festival 2012는 경희지구사회봉사단과 함께 “연민과 울림”의 축제를 마련한다. 이 축제를 통해 경희 구성원은 더 나은 미래를 염원하는 지구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일시 2012년 9월 18일(화) 18:30~19:40
장소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

영상	나눔과 소통의 경희 : 경희 실천의 어제와 오늘
축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발표	연민과 울림 : 경희의 지구적 실천 박한규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GSC) 사무총장
특별강연	체계적 변화를 위한 초석 The Building Blocks of a Systemic Change 강연 Ruchi Jain 청년환경운동가, 인도 토론 박한규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GSC) 사무총장 장대환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서나현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재학



PEACE BAR FESTIVAL 2012
Humanity, Politics and Civilizations

지구사회봉사 한마당 특별강연

The Building Blocks of a Systemic Change

체계적 변화를 위한 초석

루치 자인 Ruchi Jain

인도의 청년인 루치 자인은 히말라야의 농부들을 보고 지구온난화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뭄바이에서 마케팅을 하던 그녀는 23살의 어린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기후변화 활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코펜하겐에서 열린 UN 컨퍼런스에서 그녀는 다른 청년 활동가들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며 모두는 이러한 액션에 동참해야 한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재 인도 정부 산하 신재생 에너지부(Ministry of New & Renewable Energy)에서 코디네이터로서 활약하고 있으며, NGO인 인도 청년 기후문제 네트워크(Indian Youth Climate Network)에서 자문(Advisor)으로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다.



음악회

Concert Dedicated to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헌정음악회

제 31회 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마련한 대화합의 축제이다. 평화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이 음악회는 UN이 주최하는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에 헌정된다.

You Raise Me Up KAI 작사 Brendan Graham / 편곡 Rolf Løvland

Perhaps Love KAI & 유미란 작사/작곡 John Denver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유미란 작사/작곡 L. Holdridge

Chiquitita 박진경, 유단비, 정나윤 작사/작곡 Benny Andersson, Bjorn Ulvaeus

Imagine Post Modern Music Choir & 유미란 작사/작곡 John Lennon / 편곡 이웅 / 합창편곡 유미란

목련화 Post Modern Music Choir & 유미란 시 조영식 / 작곡 김동진 / 편곡 이웅 / 합창편곡 유미란

일시 2012년 9월 18일(화) 20:00~20:40

장소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

감독	홍성규 경희대학교 Post Modern 음악학과 교수
지도	유미란 경희대학교 Post Modern 음악학과 강사 이웅 경희대학교 Post Modern 음악학과 강사
출연	KAI 팝페라가수 유미란 경희대학교 Post Modern 음악학과 강사 유단비 경희대학교 Post Modern 음악학과 재학 박진경 경희대학교 Post Modern 음악학과 재학 정나윤 경희대학교 Post Modern 음악학과 재학
악기연주	경희피스밴드 경희대학교 Post Modern 음악학과 재학생
합창	경희대학교 Post Modern 음악학과 보컬전공 재학생



UNAI ASPIRE Kyung Hee Forum

Conflict Prevention in Northeast Asia: The Roles of the UN and the Youth 동북아 지역의 갈등 예방을 위한 유엔과 청년의 역할

UNAI ASPIRE Kyung Hee Forum은 제 31회 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Peace BAR Festival 2012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교육과 연구, 봉사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세계 대학생들의 자발적 네트워크인 UNAI ASPIRE 소속 청년학생들이 참여한다. 한·중·일 3국 유엔 협회가 주관하는 3국 모의유엔회의 및 청년포럼과 연계되는 이번 포럼은 동북아 지역의 뿌리 깊은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유엔과 대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화두로 삼는다. 3국의 주요 정책담당자와 학자의 발표에 이어 학생들로 구성된 패널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아울러 UNAI ASPIRE 소속 학생들의 온라인 토론도 병행한다.

일시 2012년 9월 21일(금) 15:30~21:30

장소 국제캠퍼스 국제경영대학관

Session 1	<p>정책담당자들과의 소통</p> <p>발표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 조정관 Chen Jian 중국유엔협회 이사 Tatsuro Kunugi 일본유엔협회 이사</p>
Session 2	<p>청년들의 상상력</p> <p>토론펠널 한국, 중국, 일본 및 UNAI ASPIRE 소속 학생</p>



국제회의 연혁

경희대학교는 1981년 제 36차 UN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31회를 맞이하는 국제회의의 역대 주제는 다음과 같다.

1982~1990

- 1982** Crisis and Peace in Contemporary World
- 1983** World Peace: Is It Possible?
- 1984** World Peace Through the UN
- 1985** U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 1986** Search for Causes of International Conflicts and Ways to Their Solutions
- 1987**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Korean Peninsula in the Late 1980s
- 1988** The North-East Asian Era and the Rol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21st Century
- 1989** Peace Beyond the East-West Conflict: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World Peace in the 1990s
- 1990** The Search for a New World Peace Order with Reference to the Changes in the East-West Relations

1991~2000

- 1991** New World Order: The Post-Ideological World in the 21st Century
- 1992** Democracy and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21st Century
- 1993** Peace in the Northeast Asia: Toward Greater Regional Cooperation
- 1994**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 1995** Tolerance,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 1996** Peace Strategies for Global Community and the Role of the UN in the 21st Century
- 1997** Visions and Realities in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East Asia
- 1998** Global Visions Toward the Next Millennium: Modern Civilization and Beyond
- 1999** Will World Peace Be Achievable in the 21st Century?
- 2000** Global Governance in the 21st Century

2001~2011

- 2001** Toward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 2002**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Pax UN
- 2003** Building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Neo-Renaissance
- 2004** Urgent Tasks for Peace: Overcoming Terrorism
- 2005** After Ideology: The 21st Century Talks
- 2006** Reinventing Universality for the 21st Century: Beyond Freedom and Equality
- 2007** Transformative Challenges: In Search of New Humanity and Community
- 2008** Future Civilization, Future University: A New Horizon for Knowledge and Praxis
- 2009** 「Kyung Hee Peace Workshop」
- 2010** The Body and Civilization: A New Horizon
- 2011** The Body and Catastrophe: Towards a New Utopia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KYUNG HEE UNIVERSITY